

전남 중부권



나주 원도심, 역사문화도시로

농업박람회 성공개최 지역경제 살리자

나주시, 지원분야·주민소득 창출 방안 논의

장흥 대덕종고, 말산업 명문고 발돋움

한국말산업중앙회 등 협력업체 4곳과 협약

말산업 전문 특성화고인 장흥군 대덕 종합고등학교(교장 정문화·이하 대덕종고)는 최근 한국말산업 중앙회, 한국말산업 학회, 한국유소년 승마협회, 사회적기업 CT & Horse사 등 4개 협력업체와 인적·물적 교류와 전문강사 확보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대덕종고는 지난해 7월 전남도교육청으로부터 말산업 관련 특성화고로 지정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3월 1일자로 (가칭)한국말산업 고등학교로 학교명을 변경할 예정이다.

대덕종고는 그동안 말 조련사·재활승마사·장재사·비육마 등 4개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전문교사의 부족을 절감, 말 전문성을 갖는 4개 회사와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대덕종고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우리나라 말산업 발전을 위하여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미래 우리나라 말산업을 선도할 명문고로 발돋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4대문안 자원 활용... 2025년까지 829억 투입

한옥촌·사적지 복원 등 '10대 핵심 사업' 추진

나주시가 옛 나주읍성권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원도심(原都心) 활성화에 나선다.

나주시는 오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829억원을 들여 4대문안 원도심에 한옥촌과 잠사(蠶絲)공장을 활용한 예술가 공방 조성 등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전주와 함께 호남의 도읍지였던 나주지역은 4대문을 비롯한 읍성터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를 위해 시는 향교 한옥촌 조성을 비롯해 잠사 예술가 공방촌 조성, 근대건축 문화자원 활용, 중심 상권 활성화, 사적구역 복원 활용, 도심 주차장 조성 등 '10대 핵심 실행사업' 청사진을 마련했다.

시는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나주 금융조합 등 근대 건축물을 문화자원으로 활용하고, 나주목 관아를 중심으로 옛 사적지 복원사업도 펴 계획이다. 금성관 주변에는 옛 교육시설인 서당 등을 한옥으로 건축하는 등 이 일대를 한옥촌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도심활성화의 동력주체가 될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도심재생 포럼과 투자자 포럼, 마을대학 운영 계획이 포함돼 있어 시민중심의 도심 활성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나주시는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와 개발 위주의 도시정비 사업을 탈피해 나주만의 역사문화도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시환경과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시는 최근 금성관에서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도심지역의 역사문화자원 활용계획을 빼다로 하는 도시활성화 계획 설명회를 가졌다.

임성훈 나주시장은 “나주읍성권에 위치한 원도심은 호남의 역사문화를 지켜온 호남 최대 읍성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어 살아 있는 생활 박물관”이라며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에 행정과 시민이 온 힘을 쏟아 역사문화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손영철기자 ycsn@

나주시가 관내에서 열리는 '2012 국제 농업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나주시는 지난 17일 '2012 국제 농업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나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하기 위한 보고회를 가졌다.

주무부서인 정책기획실을 비롯한 15개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보고회에서는 박람회 개최에 따른 일반적인 지원분야와 주민소득 창출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주말 상설 공연과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 ▲나주배 우량품종 보급방안 ▲나주 APC(농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의 12개 업체가 참여한 농산물 전시관매관 운영 ▲해외 및 국내 바이어 초청을 통한 수출상담 등이다.

또한 관내 음식 및 숙박업소 위생 점검과 친절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고성혁 부시장은 “박람회가 지역에서 개최되는 만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발굴해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12 국제 농업박람회'는 오는 10월 5일부터 29일까지 '녹색미래를 여는 생명의 세계'라는 주제로 나주시 산포면에 위치한 전남도 농업기술원 일원에서 열린다.

/중부취재본부=손영철기자 ycsn@

영암군의회 태풍피해 복구 우선... 외국연수 취소

최근 태풍이 잇따라 전남지역을 강타한 가운데 영암군의회(의장 김연일·사진)가 해외연수를 전격 취소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영암군의회에 따르면 의원 5명 등 총 8명은 당초 17일부터 22일까지 5박6일간 일정으로 대만과 홍콩·마카오 등지로 지방의회 전문성과 견문을 넓히기 위한 선진지 견학을 가기로 했다.

하지만 영암군의회는 지난 16일 의원 긴급회의를 열고 태풍과 수해로 고통받는 지역 농업인들과 아픔을 분담하기 위해 해외연수 계획을 전격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김연일 의장은 “태풍과 피해 복구 등 비상사태에 군민의 대표인 의원의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국의 연수보다는 주민의 생활안정과 피해복구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해 연수대상 의원 전원 지역을 돌아다니며 국외연수 계획을 취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중부취재본부=문병선기자 moon@



축령산 산소길 따라~ 지난 16일 장성 축령산에서 열린 '축령산 산소길 MTB 챌린저 대회'에 참가한 산악자전거 동호인들이 울창한 편백나무숲을 질주하고 있다. 장성군 체육회 주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400여명의 동호인들이 참가했다. <장성군 제공>

담양군 관광객 700만명 관광도시로 도약

담양군이 '관광객 700만명의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힘찬 시동을 걸었다.

담양군은 지난 14일부터 매주 1차례씩 총 5회에 걸쳐 공무원과 문화관광 해설사, 관광관련 전문가 등 지역관광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관광서비스 마인드 함양을 위한 '담양관광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호남대 관광아카데미(원장 안중수 교수) 주관·담양군과 한국관광공사 호남권협력단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관광아카데미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도되는 '관·학 협력 관광 전문인력 양성 프로젝트'이다.

관광아카데미는 지역의 문화와 관광자원의 가치를 발견하고 최근 문화·관광 동향과 트렌드를 면밀히 살

피는 한편 이들 자원의 특성을 찾아 답안에 맞는 문화·관광 발전 마케팅 전략을 도출해 내는 특강으로 짜여졌다.

교육과목으로 ▲담양 관광의 새로운 매력은 무엇인가(한국관광공사 고종화 박사) ▲관광서비스 마인드 제고방안(호남대 이종희교수) ▲담양 관광마케팅 전략(호남대 안중수교수) ▲담양음식 상품화 방안(진양호 전 경기대학교장)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번 관광아카데미 통해 지역에 갖고 있는 관광상품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찾아 관광을 지역발전의 한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정재근기자 jgg@

전 북



베트남에 순창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순창군이 한류 열풍으로 우리 농산물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는 베트남 현지에서 홍보관을 운영해 새로운 소비처를 확보할 계획이다.

순창군은 “올해말이나 내년 1월말에 베트남에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순창군이 베트남에 홍보관을 운영하기로 한 것은 베트남 현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 교민의 주선으로 이뤄졌다.

군은 교민이 운영하는 영업장소에 264㎡ 규모의 전시 판매장을 설치해 전통 장류와 절임류, 복분자 주·표고

버섯·고사리·건고추 등을 베트남 상류층과 교민, 한국식당을 대상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김경선 부군수 일행은 최근 베트남을 방문, 전시 판매장 현지 조사와 함께 베트남 소비시장을 분석한 결과 농·특산물 전문 판매장 개설이 긍정적인 것으로 검토했다.

앞으로 군은 해외시장 개척업무 협의회를 구성하고, 교민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업무추진 주체와 운영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회의를 거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변산해수욕장, 체류형관광지로

환지방식 개발계획... 2018년까지 474억 투입

상수도 등 기반시설에 해변공원·캠핑장도 조성

오는 2018년 부안 관광의 랜드마크인 변산 해수욕장이 미래지향적 체류형 관광지로 변모한다.

전북도는 지난 17일 변산면 대항리에 위치한 변산 해수욕장 54만5281㎡ 규모의 면적에 대한 관광지 재지정 및 조성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오는 2018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474억3700만원(민간 투자자본 제외)을 단계별로 투입해 환지방식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우선 새만금시대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로와 상수도, 녹지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위탁시설·호텔·펜

션·숙박단지 등을 조성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군은 해수욕장 해변에 위치한 기존의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사랑과 낙조'를 테마로 한 해변공원을 만든다.

해변공원에는 노을 광장과 야외공연장, 진입광장, 어린이놀이터 등이 갖춰진다. 또 친환경적인 명품 녹색 해변으로의 변신을 위해 곱슬 나무가 식재되며, 공원 주변에는 오토 캐러밴을 도입한 캠핑장도 들어선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정읍 대형마트 자율휴무로 상생발전 도모

정읍시와 정읍지역 대규모 점포가 상생 발전방안을 마련, 귀감이 되고 있다.

정읍시는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근 롯데마트 정읍점 관계자와 협상을 통해 영업규제 조례 시행시까지 자율휴무를 실시하기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롯데마트 정읍점은 지난 17일 휴무한데 이어 10월중에도 2일간 자율적으로 휴무기로 했다.

시는 지난 1월 '유통산업 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5월부터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해 영업

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시행해 왔다. 하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대형 마트는 지난 8월부터 영업을 재개했다.

이에 시는 관련 조례 제정장을 추진, 지난 10월 의회 의결을 거쳐 관련 행정절차 이행 등을 통해 10월중 대형 마트·SSM에 대한 영업규제를 다시 시행할 예정이다.

김생기 시장은 “유통환경의 변화로 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대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적극 동참해 준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정읍사 오솔길 따라~ 서울지역 도보 여행자들이 지난 15일 정읍을 찾아 '백제가야 정읍사 오솔길'을 따라 걷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27~28일 남원 사랑의 광장서 '홍부제'

'제20회 홍부제'가 다음달 27~28일 남원시 사랑의 광장에서 열린다.

홍부제추진위원회는 17일 축제 기본 취의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기자 bs8787@

열기로 했다.

제전위는 홍부제의 주제성을 높이는 행사를 중심으로 참여 행사를 확대하는 등 시민이 중심이 되고 화합을 이루는 행사로 추진할 방침이다.

축하공연은 대중가수 초정공연은 배제하고, 세계 무형유산 공모사업으로 당선된 '이것이 관소리다' 등 전통문화 공연을 중심으로 연다. 주요 프로그램은 시민참여행사로 남원 농악경연대회, 흥부길 걷기대회, 창극 흥부전, 흥부 프린지페스티벌 등이 펼쳐진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기자 bs8787@

단 신

군산시-세대에너텍, 새만금산단 투자 협약

군산시와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인)은 발전소 설비 제조업체인 ㈜세대에너텍(대표이사 김대현)과 지난 17일 전북도청에서 발전소 설비제작 공장을 짓기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투자협약 체결에 따라

정읍, 추석맞이 농·특산물 온라인 특판

정읍시는 추석을 맞아 관내 3개 정보화마을(내장산마을·대정 유기농축산물·옥정초 청정마을)은 12%까지 할인하며 샘플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한다.

농·특산물 구매를 원하는 고객은 정보화마을 '인빌쇼핑'(www.invil.com)이나 각 마을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특판 행사는 상품에 따라 최대

김제 '시민의장'에 최관호·박순애씨 선정

김제시는 최근 '제18회 김제시민의장' 수상자 선발 심사위원회를 열고 ▲공익장 부문 최관호(91·전 전북 성균관유도회 부회장) ▲효열장 부문 박순애(68)씨를 각각 선정했다.

공익장 수상자 최관호씨는 소외계층 돌보기와 윤리회복·건전한 미풍양속 확립을 위해 힘쓰고,

효열장 수상자 박순애씨는 거동이 불편한 시모를 15년간 병수발하는 등 헌신적인 가족사랑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10일 열리는 제14회 김제지평선축제 개막식장인 백골재 특설무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순창 강천산에서 '삼인문화행사' 열려

순창 삼인문화선양회(회장 양상화)는 지난 15일 순창군 팔덕면 강천산 삼인대(三印臺)에서 '제18회 삼인문화 기념행사'를 열었다.

삼인대는 조선 중종때인 1515년에 당시 순창군수 김정·담양 부사 박상·무안현감 류옥 등 3명이 여울하게 폐위된 단경왕후 신씨를 복위시키기 위해 각자의 관인을 소나무에 걸고 죽음을 각오하며 상소문을 작성한 곳이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